

2015. 5.

《2015. 4. 20(월) ~ 4. 28(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장 연수개요 1

- ① 동기 및 배경 1
- ② 현 황 2
- ③ 내 용 2
- ④ 주요일정 5
- ⑤ 연수자 명단 6

제2장 연수결과 7

- ① 비영리 감사주택연합 7
- ② 체코관광청 16
- ③ 각종 광장 등 문화시설 23

제3장 연수후기 36

- ① 전북도의회 이성일 문화관광건설위원장 36
- ② 전북도청 김대귀 지역정책과장 등 38

공식방문지 관련자료 40

- ① 오스트리아 비영리 주택감사연합 40
- ② 체코 관광청 42

제1장 연수개요

1 동기 및 배경

- 독일을 방문하여 고 건축물과 시가지 경관 등 물리적 요소들과 풍부한 역사적 스토리 등 개별 관광자원들을 연계 활용하는 독일 특유의 방식 등을 확인하고 체코를 방문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온천테마관광, 문화유산 시찰, 체험관광 등을 통한 여행객의 체류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관광정책에 대해 민선6기 도탈관광 개념 구현시 전북도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
- 음악의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국가와 도시의 예술정책(클래식)을 관광정책으로 연계시키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 특히, 8곳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접목시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헝가리를 방문하여 특별관리 방식 및 보존과 개발 논리를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
- 위원들의 현지 시찰을 통해 문화·관광·건설 전문분야 정보축적 및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

2 현 황

- 연수기간 : 2015. 4. 20(월) ~ 4. 28(화) / 7박 9일
- 방 문 국 :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 방 문 단 : 16명
 - 의 원 (7) : 의장 1, 문화관광건설위원 6
 - 의원보좌 (3) : 문화관광건설 전문위원실 3
 - 정책연구 (4) : 정책연구4팀 1, 총무담당관실 2, 운영위원실 1
 - 도 청 (2) : 지역정책과 1, 관광총괄과 1

3 내 용

-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뤼센 등)
 - 독일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요소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부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고 건축물과 시가지 경관 등 물리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관광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역사적 스토리와 예술적 요소 역시 관광대국으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
 - ※ 디즈니랜드 상징으로 유명한 판타지랜드 성의 모티브인 노이슈반슈타인 성, 뤼센 구시가지, 알프스 호수 등
 - 특히, 독일의 맥주는 독일 국민들의 식음료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요소로서, 산업화는 물론 축제와 서비스 등 다양한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정착했음
 - 이러한 개별 관광자원들을 연계·활용하는 독일 특유의 방식은 민선 6기 들어 토탈관광 개념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전라북도 관광 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임

○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비엔나 등)

- 오스트리아는 음악의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 국가와 도시의 예술정책(클래식)이 관광정책으로 직결되는 매우 특수한 사례로서 예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사운드오브뮤직(도레미송), 모차르트, 빈소년합창단, 빈필하모닉 등)
- 음악과 더불어 고성(古城)과 호수 등 역사자원과 자연환경적인 자원 역시 오스트리아의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에서 가장 완벽하게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호엔잘츠부르크성은 ‘오래된 것은 다 아름답다’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될 것임
- 기관방문(비영리 주택 감사 연합)

기관방문 중점

1. 비영리주택연합은 공공주택 정책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는가
2. 비영리주택연합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과 갈등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5. 도시재생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구현되는가

○ 헝가리(부다페스트, 브르노)

- 정치경제적 차원의 국력은 동유럽 국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관광은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
- 유럽 전반에 걸쳐서도 서유럽 중심의 관광산업이 헝가리를 필두로 한 동유럽 일부 국가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임
- 헝가리는 특히 고대부터 이어져온 온천관광과 8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접목시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만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관광수입이 국내총생산의 10% 차지)

- 헝가리 정부는 자국의 역사적 유산이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50년이 넘는 건물 중 전통 양식을 보존하고 있거나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시행

※ 건물 소유주가 임의대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변형할 수 없음

- 헝가리는 보존과 개발·활용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임

○ 체코(프라하)

- 체코는 한국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관광목적지로 유명함. 특히, 수도인 프라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했음
- 최근 10년 사이 외래 관광객 급증현상을 경험한 체코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관광수지 증대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
- 체코 관광정책의 핵심은 여행객의 체류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마이스 산업 육성, 온천테마관광, 문화유산 시찰, 체험관광 등 다각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연계시켜 나가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체코 역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토탈관광의 개념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북 관광정책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관방문 : 체코관광청

기관방문 중점

1.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2. 시민들의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
3. 급증하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은
4. 관광자원은 개발과 보존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

4

주요일정

일 자 (요일)	시간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주요내용
4.20 (월)	06:30 12:45 17:40	전북도의회 인천공항	인천공항 프랑크 푸르트		· 인천공항 도착(10:00) ·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17:40) · 장크트파울교회, 뢰머광장, 카이저 돔 등 시찰
4.21 (화)	08:00 19:00	프랑크 푸르트	뮌 헨	견학	· 로텐베르크(플뢰라인, 중세범죄박물관, 시청사탑, 지베르탑) 등 시찰 · 마리엔 광장, 신시청사, 오페라하우스 등 시찰
4.22 (수)	09:00 19:00	뮌 헨	잘 츠 부르크	견학	· 노이슈반슈타인 성, 구시가지 등 시찰 · 주변성당, 도시공원 등 시찰
4.23 (목)	09:00	잘 츠 부르크	잘 츠 감머굿	견학	· 미라벨 정원 , 게트라이데거리, 대성당 등 시찰
	14:00	잘 츠 감머굿	비엔나	견학	· 잘츠감머굿(유람선 탑승, 할슈타트) 문화 시찰
4.24 (금)	09:00	비엔나	비영리 주택감사 연합	기관	· 비엔나 비영리 주택 감사 연합 방문
	19:00	시 청	부 다 페스트	견학	· 웬부른 궁전 및 정원 , 국립 오페라 극장 등 시찰
4.25 (토)	09:00 19:00	부 다 페스트	브르노	견학	· 겔레르트 언덕, 어부의 요새, 마차시 성당 등 시찰
4.26 (일)	09:00	브르노	체스키 크룸로프	견학	· 체스키크룸로프 성, 망토다리 등 시찰
	18:00	체스키 크룸로프	프라하	견학	· 구시가지광장 , 틴성당, 프라하 야경, 천문시계, 화약탑 등 시찰
4.27 (월)	09:00	프라하	관광청	기관	· 체코관광청 방문 · 프라하성, 황금 소로 등 시찰
	18:30	프라하 공항	인천공항		· 프라하 국제공항 출발
4.28 (화)	11:20 13:00 16:00	인천공항	인천공항 전북도의회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북도의회 도착 후 해산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6명	
도의회 (14명)	의 장(1명)	의 장	김 광 수	
	문화관광건설 위원회 (6명)	위 원 장	이 성 일	
		위 원	박 재 완	
		“	박 재 만	
		“	장 학 수	
		“	한 완 수	
		“	최 은 희	
	문화관광건설 전문위원실 (4명)	전문위원	강 용	
		주 무 관	김 학 진	
		주 무 관	이 영 결	
		주 무 관	문 동 환	
	총무담당관실 (2명)	사무처장	최 병 관	
		주 무 관	손 홍 삼	
	운영전문위원실(1명)	운영전문위원	강 경 덕	
도 (2명)	지역정책과(1명)	과 장	김 대 귀	
	관광총괄과(1명)	주 무 관	민 동 규	

제2장 연수결과

1 비영리 주택감사연합

□ 방문목적

- 비영리 주택 감사 연합을 방문하여 법 개정이나, 감리, 공공주택 관리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 성공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연구 분석하여 정책 대안 제시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4. 24(금) 09:00 ~ 10:00
- 장 소 : 비영리 주택 감사 연합
- 면 담 자 : 비영리 주택 감사연합 담당자(에바 바우어)
- 내 용 : 비영리 주택 감사연합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토론, 기념품 전달 등



□ 설립연도 1946년

- 비영리 주택개발회사(1907년) : 첫 번째 비영리 주택개발회사 설립
- Kaiser Franz Joseph 1 Regierungs-Jubilaumsfonds(1908년) : 공공주택기금
- Wohnungs-Fursorgefonds(1910년) : 주거복지기금

□ GBV회원수 193개 회원 조직

구 분	내 용
인 구	- 8,390,000명
총주택	- 약 4,200,000 채
임대주택	- 총 주택의 23%
협동조합형 주택	- 99개의 협동조합 - 368,000채 (전체주택의 8%, 전체 다가구 주택의 15%에 해당) - 임대 : 255,000채 (전체 임대주택의 15%) - 소유 : 113,000채 (전체 소유주택의 21%)
비영리 법인 (Limited Profit Company)	- 94개의 비영리법인 - 주택 427,000채 (전체 주택의 10%, 다가구 주택의 18%) - 임대 293,000채 (전체 임대주택의 16%) - 소유 133,000채 (전체 소유주택의 25%)

□ 주택협동조합의 상황

- 거주형태 : 거주인구 여섯명 중 한 명은 비영리 주택협회 건설 또는 관리 아파트에 거주
- 핵심요소 : 제한적인 수익분배, 합리적인 임대비용, 고정자산화, 정부감사
-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 주택의 1/5 가량을 비영리 기관을 통해 조달

□ 주택협동조합 주택개발 예산편성

- 특정 주택예산은 지방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
-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지방정부에 배정된 공공기금은 25% 감소

□ 주택협동조합의 특징

-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임대해주거나, 자가 소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주택 프로젝트에 속한 자산과 조합의 기금은 반드시 주택 부문에 재투자 되어야 함

- 주택협동조합은 그 운영의 성과, 재정,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받아야 함
-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주택법의 규제를 따라야 함
 - 임대료는 토지, 건축, 관리, 그리고 자금조달에 드는 적절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에서 고정되어야 함. 임대료는 건물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고, 임대료는 객관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이 임대료 수준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대출의 상환이 끝나면 임대료는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됨
 - 조합원 소유 주택의 판매가격은 규제되며, 퇴거나 청산 시 애초 조합원의 기여분은 명목상 가치로 상환됨
 -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주(provincial) 정부로부터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주택협동조합은 재무적 성과, 수익성, 경영상태 그리고 의무 준수를 평가하는 감사 절차를 따라야 함. 연방의 주들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의 수준을 정함
 - 주택협동조합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공적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 주택협동조합이 맡은 프로젝트의 90%가량은 공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주택세대들은 주택촉진계획(the Housing Promotion Schemes)에 의해 규정된 의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의무는 다음과 같음

<의무사항>

- 조합원에 대한 소득 제한의 적용(application of income limits)
- 공공 당국에 대한 세대 배정(몇몇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도시재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역사가 오래되었음. 그만큼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도 다양하며 그 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비엔나의 비영리주택감사연합은 협동조합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해 왔음
- 비영리주택감사연합이 주민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을 병행한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도시민의 주거행위가 가장 중심축을 차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임
- 이 같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을 병행시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은 사업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일례로 비엔나의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을 결합시킨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19세기 말에 지어진 가스 저장소와 공장 시설이었지만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쇼핑몰, 공연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효과를 이끌어냄
- 낙후 지역의 도시재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을 결합한 가소메타와 같은 사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영역이 혁신적 형태로 결합하는 게 관건임
- 비영리 주택감사연합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형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도시재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자금조달

- 자금조달 : 주택촉진계획에 의한 공적자금(금융지원)을 주택협동조합에 직접 제공 ➡ 주택건설비용으로 사용
 - 주택건설 비용의 20%~6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장기, 저금리의 공적 보조금 또는 주택담보대출
 -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러한 대출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보조금 및 대출 (annuity grants/loans) 그 밖의 지원들은 다음을 포함

- ※ 가계의 수입과 가구원수에 기초한 주거 수당(오스트리아 가계의 6% 정도만 수당을 받음(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
- ※ 어떤 종류의 주택을 구입하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매 프로그램 운영

【주요 현황 설명】

- ◆ 감사연합은 건축업자, 계획, 설계자, 시행사, 관리자까지 포함한 모든 회원을 말함
- ◆ 총 주택 중 개인주택 46%와 자가주택 11%를 포함하여 총 57%가 개인 소유의 주택이며, 나머지 43%가 임대 형식 등 타인소유의 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음
- ◆ 타인소유의 주택 43% 중 20%는 임대형식으로 8%가 영구임대주택이며, 12%가 비영리 주택 감사연합이 관리하고 있음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그만큼 규제와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하며 절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사업으로 재투자되어야 함
- ◆ 오스트리아 9개주는 각각의 주택진흥기금을 갖고 있으며 규정은 각기 다름

□ 질의답변

◆ 세대수 규정이 별도 있는지?

- ▶ 높이, 크기만 제한이 있고 별도 세대수 규정은 없음

◆ 외국인과 같은 다문화 가족에게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 ▶ 비엔나의 1/8정도가 외국인으로서 별도 혜택은 없고 의미도 없음
- ▶ 주택진흥기금은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혜택은 모든 시민이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음
- ▶ 2008 ~ 2009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경제 침체 시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
- ▶ 집주인과 세입자간 건전성이 우수하며 비영리 주택 감사연합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 ▶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며 1년 후 나가게 되더라도 최소 4개월 전에는 의사표시를 해야 가능함

◆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지?

- ▶ 중개업자는 있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하지 않음. 그 이유는 이익금을 일부 중개업자에게 나누어 줘야하므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주택진흥기금은 오스트리아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EU 조건도 따라야 함

◆ 주택진흥기금은 현재 신축된 건축물 등에 주고 있으나 현재 저희 입장은 건축업자에게 주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직접 달라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저희는 시민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는 건축업자 등 건축업을 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 보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계층간 사회적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 ▶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오래되었고 집크기가 작더라도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실정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시 차원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하고 재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 거주자들이 우선 입주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별도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시 사 점

- ◆ 비영리 주택감사연합은 조합원에게 임대해주거나, 자가 소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주택 프로젝트에 속한 자산과 조합의 기금은 반드시 주택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 ◆ 또한, 비영리 주택감사연합은 재무적 성과, 수익성, 경영상태 그리고 의무 준수를 평가하는 감사 절차를 따라야 하고 연방의 주들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의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감사방법 및 자료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전라북도도 재정 건전성을 더욱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비영리 주택감사연합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공적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주택협동조합이 맡은 프로젝트의 90%가량은 공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주택세대들은 주택 촉진계획에 의해 규정된 의무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바, 전라북도도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율을 높여 무주택 거주자들을 최소화하면서 규정의무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 가소메타 주거단지와 같이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쇼핑몰, 공연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효과를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뉴타운식 개발방식보다는 기존 건축물 외관 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방문사진



주요현황 청취



주요현황 청취

□ 방문사진



기념사진



기념품 전달사진

2 체코 관광청

□ 방문목적

- 관광마케팅 방법 및 정책대안 등을 습득하여 외국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환대서비스 개선 방법 등을 통한 맞춤형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4. 27(월) 10:00 ~ 11:00
- 장 소 : 체코 관광청
- 면 담 자 : 관광청 PR 부서 자나 베르코바 과장
- 내 용 : 체코관광청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토론, 기념품 전달 등

CzechTourism
Since 1993

체코관광청

Jana Berková
head of PR department

Czech Tourism Board
Vinohradská 46, 120 41 Praha 2
gsm +420 777 702 739
tel. +420 221 580 420
berkova@czechtourism.cz
www.czechtourism.com

□ 설립연도 1993년

- 국내외 관광시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여
 - 구성 : 국내관광분야, 도시, 지자체, 관광사업자

□ 비전과 목표

- 국내외 관광 진흥과 관련된 주요활동을 통해 관광발전을 도모
- 과거 공산국가에서 탈피하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되도록 노력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도 프라하와 같이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매력을 홍보
-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보여주어 관광객들의 재방문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임

□ 체코의 관광시장

○ 주요시장

-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 새로운 유럽시장

-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 비유럽권 : 중국, 한국, 브라질

□ 마케팅 캠페인

○ 슬로건 「이야기가 있는 나라 체코」, 「로맨틱 프라하」 등

- 관광객 스스로 숨겨진 장소를 찾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인
 - 신성한 건조물, 도시 건축, 관습, 전통음식과 같은 독특한 문화
 - 시골길, 여름과 겨울 기간내 아웃도어 활동
 -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 의료관광 /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투어

□ 홍보방법

○ 온라인

- www.czechtourism.com, 여행사 온라인 홍보

○ 오프라인

- 브로셔 및 지도제작, 외국 저널리스트와 관광가이드 초청 팸투어
- 축제(관광관련 영화제 등)

□ 컨벤션 뷰로

○ 국내외 시장에서의 회의, 인센티브 투어

○ 국제적인 회의 도시로서 수도 프라하가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체코 관광연구원

- 관광정책에 유용할 수 있는 시장 분석과 보고서 작성
- 국제관광시장에 대한 예측
-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제공
- 장기 경쟁에서 발전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체코방문 한국관광객 성향

- 체코항공, 대한항공 주 8회 운항
- 15 ~ 20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패키지 관광
 - 체코여행사 세분화 : 여행상품 기획 업체, 상품 판매업체, 가이드 업체로 구분

【주요 현황 설명】

- ◆ 현재 체코를 관광하는 순위는 독일, 러시아, 슬로베키아, 폴란드, 미국 등에 이어 한국이 14위임
- ◆ 주요 한국 관광객은 체코에서 약 24만 원 정도 소비하고 있음
- ◆ 체코의 관광분야 비중은 프라하가 6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체스키 크룸로프와 온천도시 순임
- ◆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은 관광지와 온천지로 이루어진 도시들이며 특히 12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점이 강점임
- ◆ 출산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으며 성형수술도 저렴한 편으로 의료 관광도 여행의 한 테마로 급부상 하고 있음
- ◆ MICE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프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5위로서 파리나 런던보다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청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이 아직까지는 어려워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 개발사업의 한계를 갖고 있음

- ◆ 전 세계에 19개의 현지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방영된 2002년 “프라하의 연인” 으로 유명해져서 2015년은 로맨틱 도시를 테마로 관광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 프라하를 신혼여행 장소로 팸플릿을 만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 홍보 중이며 여행객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질의답변

- ◆ 오스트리아는 한국어 가이드 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체코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관광안내책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 ▶ 국가 재정형편상 예산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2015년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 중으로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임
- ◆ 체코를 방문하는 한국관광객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체코항공의 지분 중 50%를 대한항공에서 취득하여 한국에서 체코로 오는 직항 8편이 편성되어 있고 드라마의 영향 등으로 현재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것이며 10일정도 휴가를 유럽으로 올 경우 2일 정도는 체코에서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체코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음
- ◆ 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체코 관광객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 ▶ 약 10~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관광객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관광정책 수립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 ▶ 방 5개 이상의 호텔 숙박업소를 통하여 관광객 수치를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광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관광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중임
- ◆ 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이 아닌지
 - ▶ 체코의 관광상품인 맥주 및 크리스탈 등에 대해 적극 예산 편성하여 관광상품화 및 홍보를 추진하여 관광산업이 곧 기반산업임을 입증할 계획임

□ 시사점

- ◆ 체코의 경우, 슬로건으로 「이야기가 있는 나라 체코」, 「로맨틱 프라하」 등을 만들어 관광객 스스로 숨겨진 장소를 찾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는 점을 보아 전라북도도 슬로건 등을 통한 전라북도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고,
- ◆ 체코의 신성한 건조물, 도시 건축, 관습, 전통음식과 같은 독특한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건축물, 백제문화 및 근대 도시 건축물 등을 투어하면서 맛 기행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 전개가 필요함
- ◆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패스라인 구축과 음식관광 팸투어 사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 및 사업추진을 통해 전북을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 ◆ 또한, 진안 홍삼 스파, 고창 석촌온천 등을 세계적인 스파로 발전시키고, 도내 개인병원,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최근 증가하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화권 관광시장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활용하여 관광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 ◆ 여기에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투어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이해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어 관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MICE산업을 육성을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컨벤션 센터 및 특급 호텔 등 건립해야 함. 또한, 호남고속철도(KTX)개통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관람, 의료, 쇼핑, 교육에 대한 빨대현상 차단과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방문사진



주요현황 청취



주요현황 청취

방문사진



기념사진



기념품 전달사진

3 각종 광장 등 문화시설

□ 독일

○ 뢰머광장

◆ 방 문 지 : 뢰머광장, 카이저 돔 등

◆ 특 징

- 뢰머광장(Römerplatz)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사, 뢰머는 프랑크푸르트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임. 2차 대전이후 손상된 청사를 원형 그대로 복원. 원래 귀족의 저택이었던 것을 15세기 초에 시가 사들인 것으로 도시의 생성과 동시에 지어진 뢰머의 2층에는 신성 로마제국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베풀던 방, 카이저자르가 있음. 유럽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뢰머광장 앞 정의의 여신 분수 또한 유명한 볼거리로 알려져 있음
- 유럽의 주요 도시에는 로마의 스페인 광장, 뮌헨의 마리엔 광장,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 등, 보통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광장이 있음.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뢰머 광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뢰머 광장에는 1405년부터 600년 동안 프랑크푸르트의 시청이 있었고, 프랑크푸르트 최초의 은행도 뢰머광장에 위치해 있던 역사적 배경이 있음

◆ 방문성과

- 유럽 도시의 광장은 오늘날 유럽의 과거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인구의 75~80%가 집중된 도시생활의 다양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광장이 의미하는 바는 50년 또는 100년 전까지 그 광장들이 향유했던 공간적 관점을 망각하고 단지 차량을 소통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넓은 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임
- 대다수 인구가 살았던 시골과는 반대로 도시의 광장은 시장, 종교와 공공 기념비적 건축물, 축제, 행사, 여가활동 등과 더불어 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함. 광장은 주민들이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는 교외와 관계를 맺으며 이 광장들은 그들의 내용과 활동을 조절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 광장은 건축적·도시적으로 물리적인 실재이지만 광장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게 되고,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관광코스로 인식되고 있음

◆ 방문사진



전경사진



단체사진

□ 오스트리아

○ 할슈타트 방문 (1997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

◆ 방 문 지 : 할슈타트(Hallstatt) 호수

◆ 특 징

- 할슈타트는 그문덴(Gmunden)지역에 위치한 그리 크지 않은 마을로 고사우(Gosau)호수의 남서쪽 호수변 플라센(Plassen Mount. ; 해발 1,953미터)의 산기슭 해발 508m, 59.80km² 면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임. 알프스산맥의 거친 암반으로 이뤄진 산과 깨끗한 호수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자연경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 완벽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이 공존

- 깊은 호수마을은 예전에는 소금광산이었으며, 할슈타트의 ‘hal’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을 지녔고, 세계최초의 소금광산도 이곳에 있었음. 귀한 소금산지였던 덕에 풍요로운 과거를 지녔던 마을은 소금산업의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관광지로 모습을 바꾸고 호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명하며, 알프스산맥의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1997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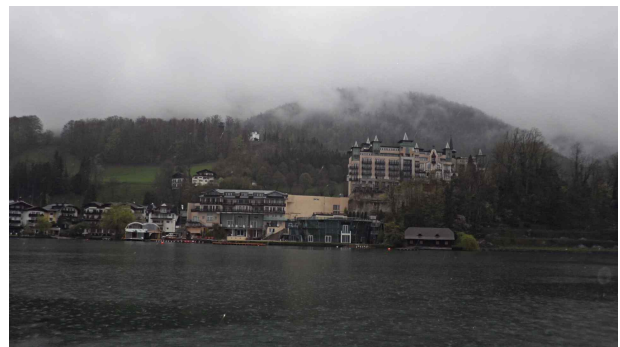
◆ 방문성과

- 세계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내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 특히, 할슈타트 주변을 과도하게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며, 세계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유지하는 자연친화적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전경사진



전경사진

○ 잘츠부르크 방문

- ◆ 방문지 : 호엔 잘츠부르크 성, 미라벨정원, 모차르트 생가 등
- ◆ 특징

- 오스트리아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도시로 모차르트가 탄생한 도시로 유명하고 ‘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잘츠부르크는 696년 웨스의루퍼트 주교가 바바리아 공작인 테오도로부터 선물받은 ‘주바름’이라는 황량한 땅에 대주교가 관할하는 도시를 세우며 시작되었음
- 특히, 미라벨 정원은 볼프 디트리히 주교의 러브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영화 ‘Sound of Music’의 무대로 유명함. 정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아름다움에 이러한 풍부한 스토리와 콘텐츠가 결부됨으로써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관광매력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방문성과

- 모차르트가 탄생한 곳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도시 전체에서 모차르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 즉, ‘모차르트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차르트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가장 강력한 관광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 전북의 지역관광산업 역시 도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물과 역사 문화유산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시도가 시급함

◆ 방문사진



미라벨정원 단체사진



호엔잘츠부르크성 밖 전경

○ 잘츠부르크 방문

- ◆ 방 문 지 : 쉐부른 궁전 및 정원 등

◆ 특 징

- 쉔부른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18세기 후반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집한 동양의 자기나 칠기,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으로 우아하고 호화롭게 로코코식으로 꾸며져 있음
- 왕궁정원은 약 1.7km²에 달하는 바로크 양식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다수의 분수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44개의 대리석 석상들이 있으며,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비엔나에는 쉔부른 궁전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가 보관중인 벨베데레 궁전,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스트라우스 2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잠들어 있는 빈 중앙묘지 등 많은 관광요소가 산재해 있음
-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형 도로를 따라 관광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관광지가 시내중심에 모여 있어 거의 도보로 명소를 둘러볼 수 있음

○ 방문성과

-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빈은 명성에 걸맞게 박물관, 대학건물 등이 도시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가 도로, 인도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로 유명한 도시의 기반시설 보다 훨씬 안전과 편리성이 특기할 정도로 뚜렷함
- 현재 전북도내 자전거 도로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시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 만큼 위험성을 인지하며, 외국인이 실수로 자전거 도로에서 서있을 경우 위험함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도로는 무의식적으로 일반도로 및 인도와 구분될 정도로 자전거 문화가 성숙해 있었음.



- 도시계획과 자전거 도로 및 주변시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벤치마킹이 필요함.

◆ 방문사진



헨부른 궁전 전경



단체사진

□ 체코

○ 프라하 지역(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과학유산 등록)

◆ 방 문 지 : 프라하성, 카를교, 구시가지 등

◆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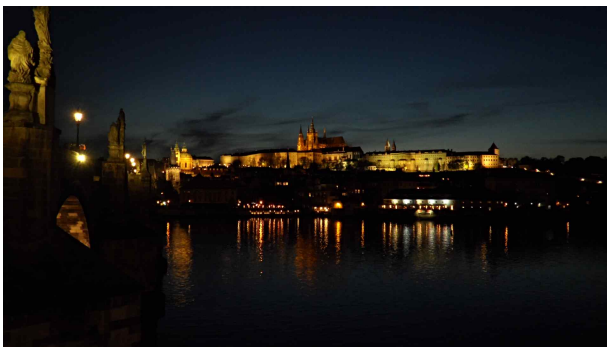
- 체코의 수도로서,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신비스러운 고도이며, 작은 골목하나에도 중세의 향기가 배어있음. 또 시내 곳곳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양식, 르네상스양식, 바로크 양식 등, 시대를 망라한 수많은 중요한 건축물들이 망라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과학 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유산이 있는 역사의 중심지로서, 프라하는 EU가 지정한 2000년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명명된 9개의 도시 중 하나에 속함
- 프라하를 대표하는 프라하성은 9세기에 이미 교회가 있던 자리로서, 11~12세기에는 로마네스크 바실리카 교회가 성 비타 로툰다를 대체하기 위해 세워졌고 이어 성 조지 교회가 재건되었음. 같은 시기에 외각의 돌담이 축성되어 성의 면모를 갖추게 됨
- 프라하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인 카를교는 1357년 카를4세 때 교회 건축가인 피터 팔레지(Petr Parler)가 건축하여 1402년 완공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516m의 길이에 16개의 기둥과 3개의 브릿지 타워가 있으며, 구시가지 브릿지 타워는 많은 조각상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브릿지 타워로 평가받고 있음

◆ 방문성과

-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 10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도시로 세계 2번째로 지하철이 건설되었으며, 동유럽 관광의 핵심지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하며, 대학 강좌에도 한국어 강좌가 상당수에 이름
-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도 세계에 수위를 달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유학생도 많은 인원이 학위 공부를 하는 등 문화유산과 현대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임

- 체코의 문화유적은 대부분 보존이 잘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저항 없이 항복함에 따라 온전히 보존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는 있으나, 후세에 이르러 많은 세계인들이 동유럽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체코 자국의 아픈 역사도 100% 어떠한 포장 없이 보존하고 알리고 있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거울삼는 체코인들의 역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타국가의 침략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점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후세를 위해 아픈 역사도 그래도 보존하는 체코의 문화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방문사진



프라하성(야경)



성비타성당

○ 체스키크롬로프 역사지구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 방 문 지 : 체스키크롬로프 역사지구(Historic Center of Cesky Krumlov)

◆ 특 징

- 체코 공화국의 남동쪽에 자리한 중세의 성도시인 체스키 크롬로프는 인구 약 1만 5천명의 작은 도시로서 블타바 강변에 자리하고 있음
- 크롬로프의 역사는 13세기의 한 지주가 성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고, 700년이 흐른 지금도 중세의 모습이 완벽한 원형에 가깝게 유지, 보존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건물의 내외부 보수와 변형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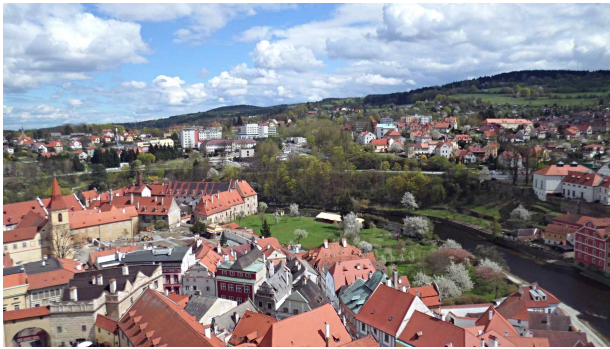
- 인위적 복원에 의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방문객들에게는 그 자체로 관광요소가 되고 있음
- 크롬로프 안에는 붉은 기와지붕의 중세적인 건물들과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고딕양식의 성, 바로크와 르네상스 등 중세의 미술양식이 섞인 정원들이 산재해 있고, 중세 주택건축물 안에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생업이 영위되고 있음

◆ 방문성과

- 체스키 크롬로프는 국내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민속촌 형태의 관광지와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되고 있는 관광지와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 중세 시대의 성과 건축물, 그리고 마을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이 유럽 중세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예술적 경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마을 내에 유서 깊은 전통 레스토랑과 특산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보고만 가는’ 관광이 아니라 ‘지갑을 여는’ 관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전통과 민속의 보존은 물리적 원형은 물론, 역사문화적 스토리와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성공 가능하고, 보존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방문사진



체스키 프로보르 풍경



단체사진

□ 헝가리

○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 방문지 : 겔레르트 언덕, 어부의 요새, 부다왕궁 등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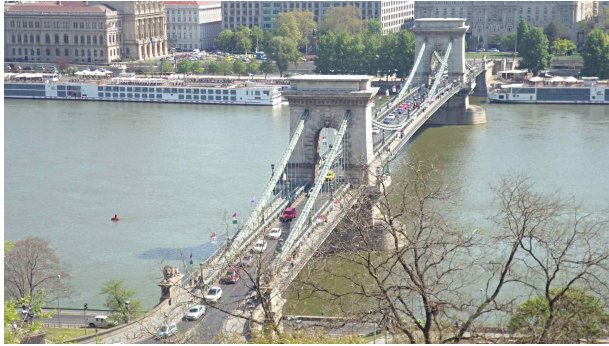
- 헝가리는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다는 물이 풍부하여 예부터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며 페스트지역은 도자기로 유명함
- 부다페스트 역시 체코 프라하처럼 강변을 중심으로 한 조망과 야경이 압권이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 역할
- 부다페스트는 인근 동유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적은 편이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도나우 강변과 부다 성 구역, 안드라시 대로 등

◆ 방문성과

-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학문의 중심지이자 동유럽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도시로서,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문화재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요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최근 10여년 사이 서유럽과 남유럽 위주의 유럽관광이 동유럽 지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그 영향이 헝가리(부다페스트)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헝가리 당국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 개발을 병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 환대서비스 등 수용 자세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마차시 성당에는 시각 장애인이 성당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미니 조각품을 비치하여 두는 것을 보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건물은 벽체가 일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전북도도 여러 방안을 고민할 시점임을 깨달았음
- 나이, 성별,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 시킴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몸소 구현하는 유럽을 보면서 배리어프리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곧 미래의 사회임을 깨달았음
- 특히, 노약자, 임산부 등이 휠체어 및 유모차를 끌고도 각종 버스 및 지하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장애우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 등이 설치된 점 등을 볼 때, 전북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단순히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역할 등을 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음

◇ 방문사진



세체니 다리 전경사진



겔레르트 언덕 단체사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차시 성당 미니 조각



마차시 성당 주변 건물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독일 버스



장애인 놀이터

□ 시사점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현재 문화유산, 근대건축물, 경관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음악·미술·대중문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도내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연계화하고, 관광객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이 발굴된다면 민선 6기 토탈관광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토탈관광이라는 정책 개념이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수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관광기념품이라 할 수 있음. 독일은 쌍둥이 칼, 체코는 크리스탈 제품이 국가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써 일상 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반드시 면세점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향후 전북도에서도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상품을 대표 상품화하는 것도 필요함
-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편리하게 주요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곧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제3장 연수후기

1 전라북도의회 이성일 문화관광건설위원장

○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관리, 활용하다.

- ◆ 선진국의 문화재 유지관리와 활용방안을 동유럽의 여러 국가를 돌아보며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도내 문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개발과 보전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 문화 관광을 스토리텔링화하다.

- ◆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차르트는 음악가를 큰 테마로 하여 국가 전체의 관광상품에 녹여 유적지, 초콜릿, 생가 등 많은 관광 사업에 반영하여 이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명 영화·광고 등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 우리나라처럼 단순 세트장을 지어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내 유명관광지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도시야경 등을 개발하여 영화산업과 접목하여 전북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지로 추천할 수 있겠다.

○ 문화기반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다.

- ◆ 동유럽 중에서도 체코 프라하 한곳만 해도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기반시설보다 많으며, 유럽전체가 음악·미술·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대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다.
- ◆ 문화시설을 비생산적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자국 국민의 문화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예술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꼈다.

○ 단점을 장점화하다.

- ◆ 유럽의 경우 대부분 물 부족의 나라로서 식수를 대신해 맥주, 와인을 생산하여 식수 대용품으로 이용하면서 세계 최고의 주류시장을 개척한 그들은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건강프로젝트, 농가 민박, 낚시 등 휴가특수전문 상품 등 테마 있는 관광 마케팅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 보존과 더불어 불편함을 감수한 관광 상품화를 본받아야 한다.

- ◆ 중세 절대군주의 부산물인 왕궁, 성, 성당, 동상, 다리 등을 고스란히 잘 보존하기 위해 실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용함으로써 관광 상품화 하였고 전동차인 트램, 자전거 전용도로 등 무공해 대중교통시설로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있었다.

○ 유럽의 국민성을 본받아야 한다.

- ◆ 신호등이나 사람이 건너가는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멈춰서고, 상대방이 실수를 했는데도 항상 그들은 자신의 잘못인 양 “쏘리” “땡큐”를 입에 달고 다니는 상량함과 친절함, 세금을 안내면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범죄 건수도 현저히 적은 안정적인 나라들을 대하고 나니 국민성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우리로서는 범국가 차원의 국민정신 계몽운동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아졌다.

○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지 개발 연계가 필요하다.

- ◆ 전라북도 국제공항과 신항만의 빠른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호남 KTX 정차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전북도청 김대귀 지역정책과장, 관광총괄과 민동규 주무관

○ 문화유산은 곧 관광 자원이자 수익원이다.

◆ 도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연구였다. 즉, 동유럽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스토리화 하여 연간 2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향토문화(음식문화, 생활문화 등), 세계문화유산(고창 고인돌, 람사르 습지, 판소리 등) 등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상품으로 구성하여 체코의 프라하와 같이 세계인이 전북을 찾도록 글로벌 관광목적지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별 특성화를 통해 관광명소화 하다.

◆ 가령, 오스트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음악일 만큼 모차르트, 요한스트라우스,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유명한 음악가들의 유산을 관광 상품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잘츠부르크와 빈 그리고 프라하는 영화 속 명소를 가지고 관광을 특성화시켰으며 여기에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역사성을 잘 표현해내고 있기에 이를 우리의 세계 문화유산 상품화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기반 시설 개발을 통한

이익창출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의 자원성을 바탕으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책과제로 삼을 만하다.

○ 도시재생과 도시경관은 미래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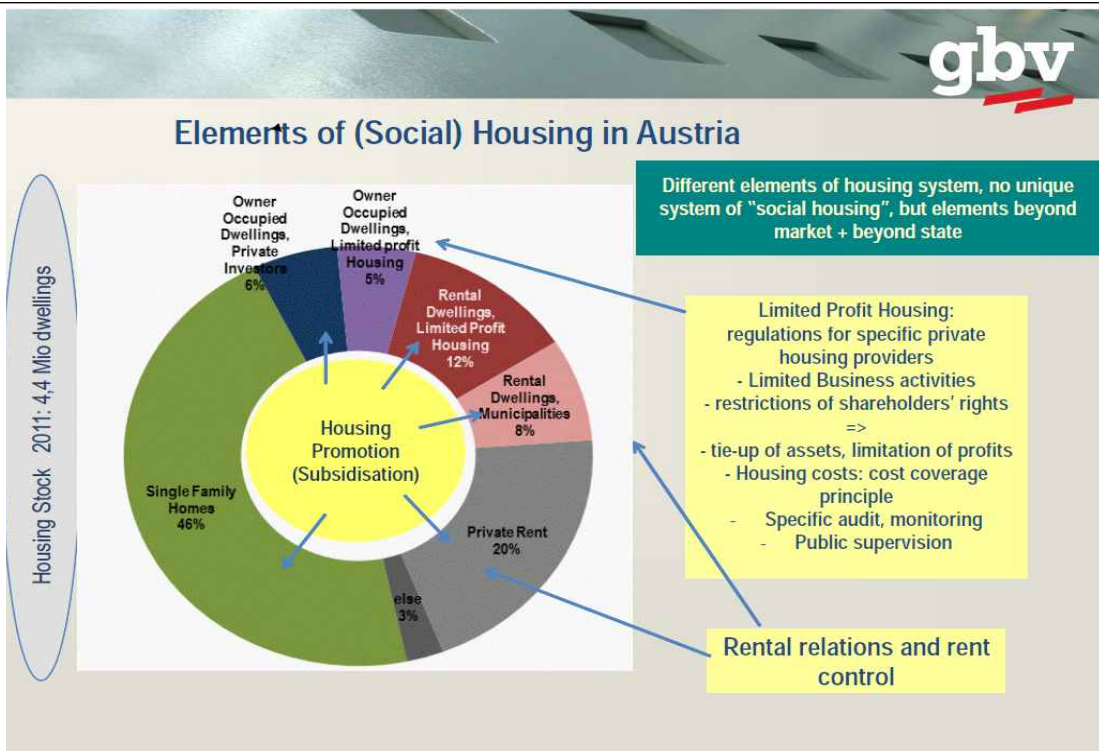
- ◆ 가소메타 주거단지와 같이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쇼핑몰, 공연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효과를 이끌어낸 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뉴타운식 개발이 아닌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 ◆ 유럽 선진국의 많은 아름다운 강변 도시들의 아름다움을 대변하고 있는 도시경관은 시민, 행정, 기업 등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에 차이점을 실감하였다.
- ◆ 이렇게 이루어진 도시의 경관은 곧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테마를 이루어 추진될 것이며 미래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 다양한 소재가 관광 상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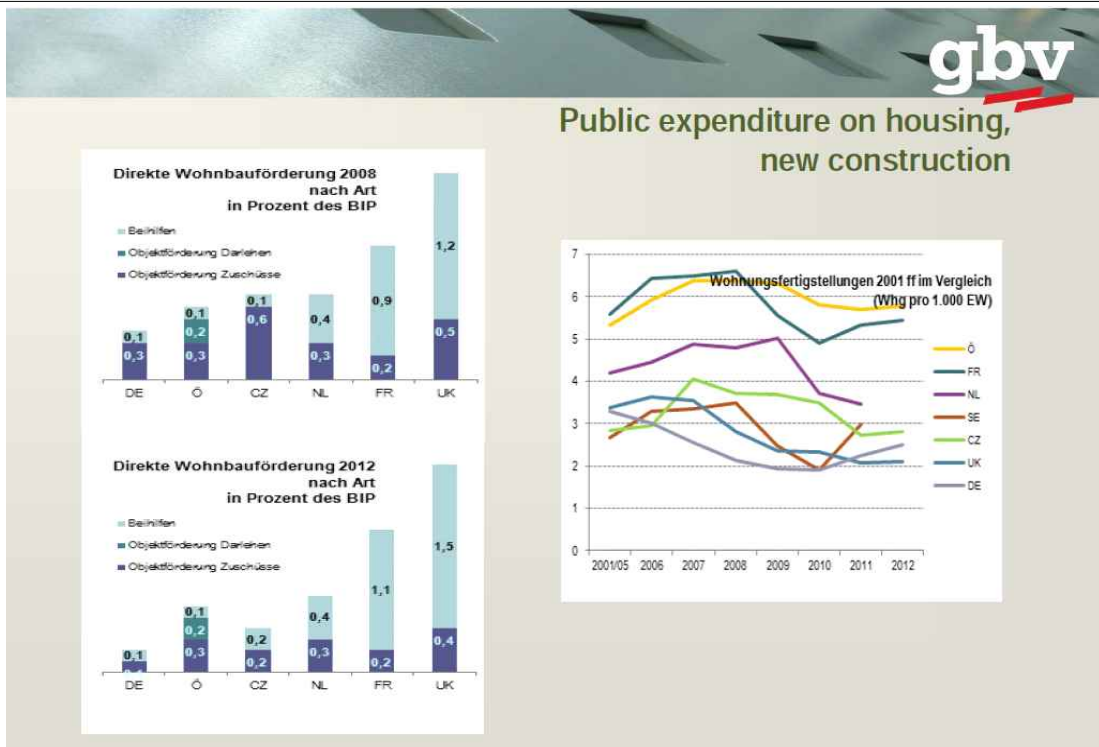
- ◆ 따라서 향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문화유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시경관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식방문지 관련 자료

가. 오스트리아 비영리 주택감사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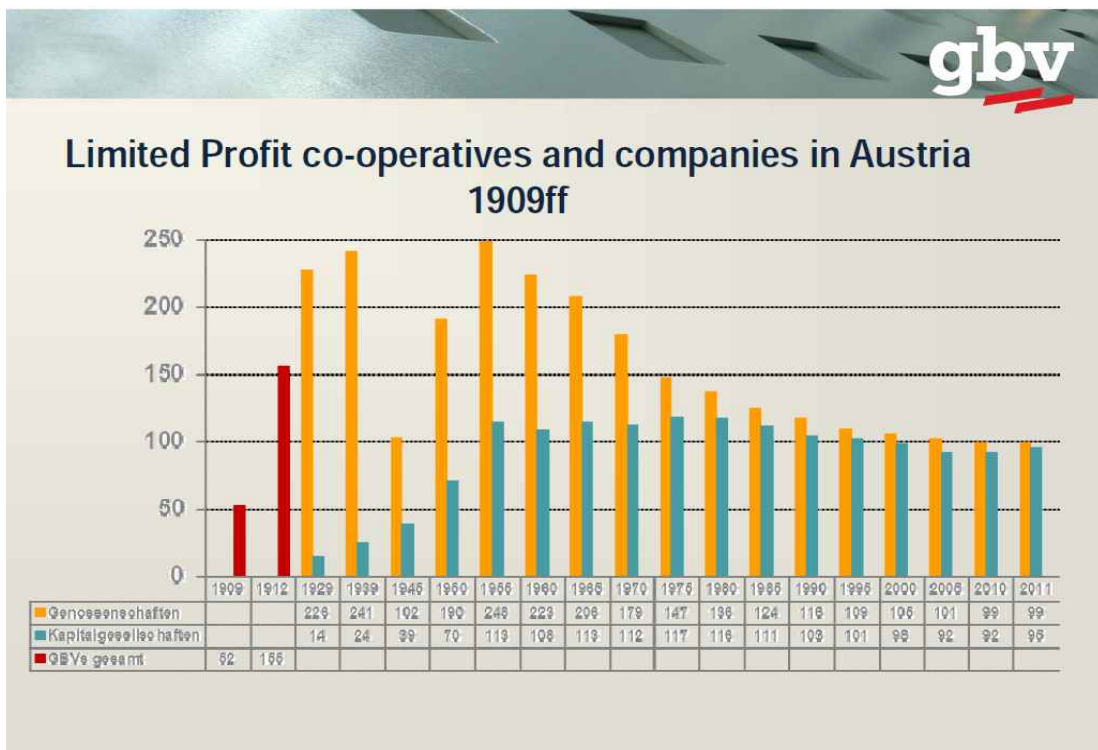


관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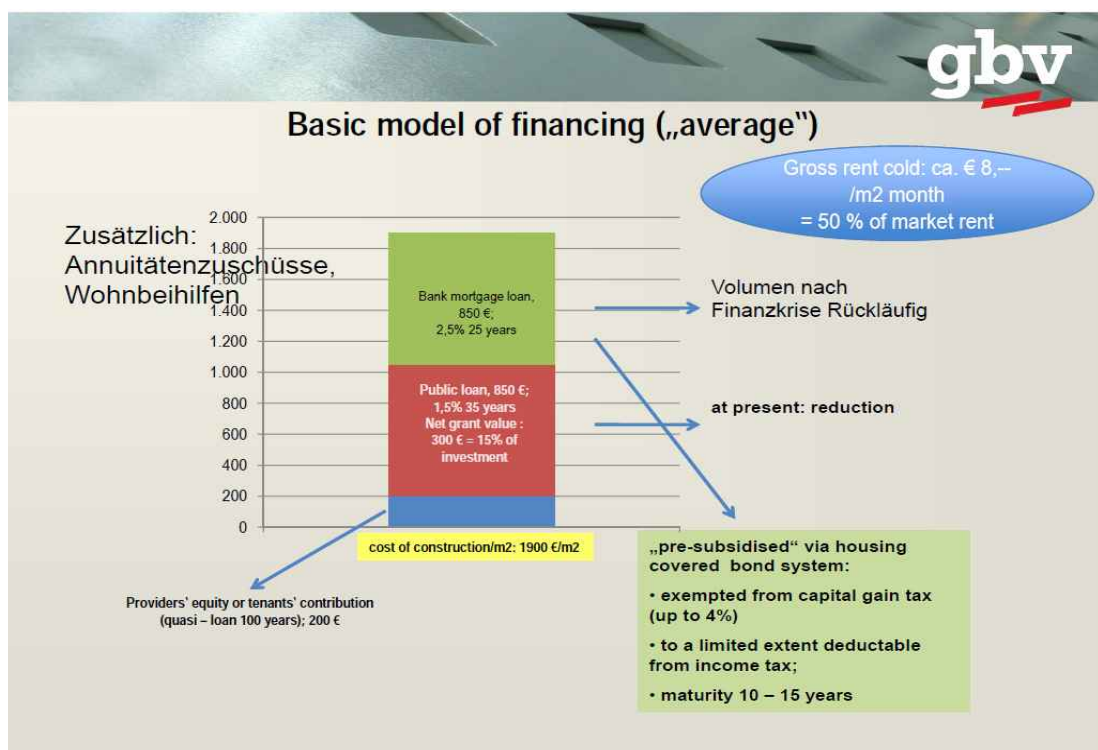


관련자료

가. 오스트리아 비영리 주택감사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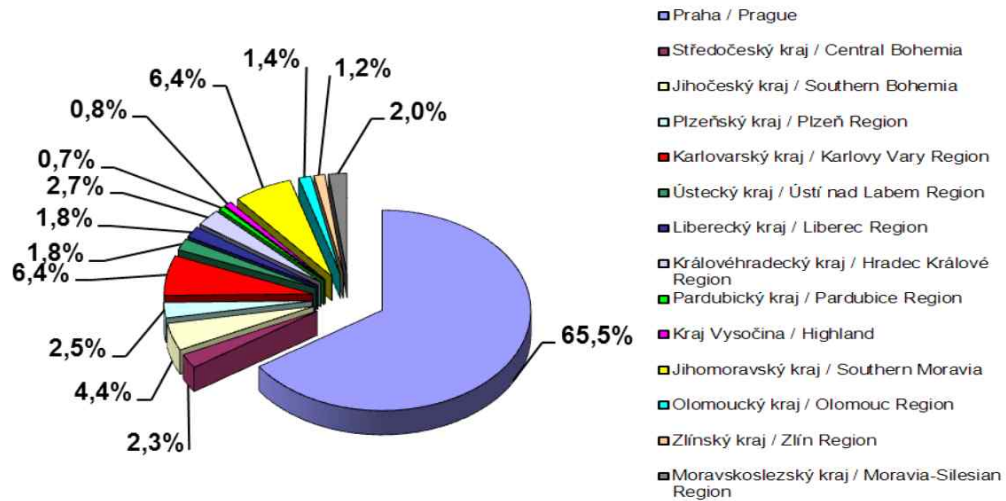
관련자료



관련자료

나. 체코 관광청

Arrivals to the Regions, 2014



Source: <http://www.czso.cz/>

Czech Republic
Land of Stories

11.5.2015 11

관련자료

Print Campaigns



Czech Republic
Land of Stories

11.5.2015 30

관련자료

나. 체코 관광청

Tourism in the Czech Republic

8,126,369 foreign guests in 2014
3,5 % increase compared to 2013 (7,309,856)

65,5% of foreign tourist stay in Prague

3.7 days, this is the average length of stay

189 935 tourists from South Korea
(Top 14 country)

Seoul CzechTourism's office for South Korea

Source: <http://www.czso.cz/>

CzechRepublic
Land of Stories

11.5.2015 6

관련자료

Marketing Topics - Products



CzechRepublic
Land of Stories

11.5.2015 13

관련자료